

## 20세기 말 밀리터리 룩 패션에 표현된 색채연구

- 1996년부터 2000년까지 패션잡지를 중심으로 -

추미경·김혜경<sup>+</sup>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산업전공 강사·원광대학교 생활과학부 패션디자인 산업전공 교수<sup>+</sup>

### A Study on the Color Expressed on the Military Look of the Late 20th Century Fashion

- Focused on the Fashion Magazines from 1996 to 2000 -

Mi Kyung Chu · Hye Kyung Kim<sup>+</sup>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Wonkwang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 Industry, Wonkwang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1. 9. 19, 심사(수정)일: 2011. 11. 21, 게재확정일: 2011. 12. 28)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lor and color coordinations and their aesthetic values expressed in the military look designs from 1996 to 2000. The research data were gathered from Vogue and Collezioni Donna from this period. Total of 1004 works were collected and us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 the colors of the military look, achromatic colors such as black and white were found to be of the highest quantity, which indicates that achromatic colors continued to be proposed as fashionable colors since 1996, and this influence was reflected in the military look. In terms of color coordination, monochromatic coordination accounted for 52.7% of the military look, through which it could be presumed that designers utilized it greatly to make an effective expression of the masculine image of the military designs.

Key words: color(색채), color coordination(색채 배색), military look(밀리터리 룩)

---

본 논문은 2010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 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Hye Kyung Kim, e-mail: hanel@wonkwang.ac.kr

## I. 서론

유행에 민감한 현대인은 다양한 제품들 속에서 많은 색의 선택 속에 살고 있으며 색상은 곧 구매자의 개성이나 감정의 상태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색에 대한 감성은 다양한 색 만큼이나 각 개인의 경험과 소속된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어느 정도 보편성을 지니며 공유되는 이미지와 상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밀리터리 룩에서의 색채는 일반적으로 고유한 카무플라주(camouflage) 문양이나 그린(green) 계열 색상이 밀리테리를 상징하는 컬러로 인식되었지만 20세기말에는 획일적인 스타일에서 벗어나 전위적인 디자인 경향과 함께 다양한 색채로 재탄생하였다. 이 시기에 밀리터리룩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은 세기말에 대한 기대와 두려움 속에서도 꾸준한 인기와 더불어 마니아층이 형성되면서 스트리트패션에서부터 경쟁성 있는 패션시장을 형성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기말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 사용되어온 색채 및 배색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은 패션산업체의 상품기획에 있어서 컬러 플래닝(color planning)에 중요한 단서가 되고 제품으로서의 밀리터리 룩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빈티지룩, 에스닉룩, 에코디자인의 색채특성에 관한 선행연구<sup>1)</sup>는 있지만 밀리터리 룩에 관한 색채 및 배색에 대한 심도 있고 체계적인 자료 분석이 미비하였기에 이러한 색채와 관련된 연구가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는 밀리터리 룩이 크게 부각되었던 세기말, 즉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의 색채와 색채코디네이션에 관하여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여 정량적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밀리터리 룩의 색채에 관한 체계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으로는 이론적 고찰로써 패션색채, 패션의 유행색, 배색의 종류 그리고 밀리터리 룩에서의 색채 및 색채코디네이션의 분석 결과를 고찰하는 순으로 살펴보았다.

## II. 이론적 고찰

### 1. 패션과 색채

패션에 있어서 색채는 디자인 요소 중 가장 강력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달하는 도구로써 패션의 이미지에 커다란 역할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색채는 패션의 이미지 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써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즉 다른 색들과의 적합한 배색으로 기능적이고 심미적인 효과적인 색의 설계가 되어야만 매력적인 패션상품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패션색채는 패션제품을 구성하는 요소인 선, 재질, 색채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이미지 전달도구로써 패션상품의 경쟁력과 마케팅 측면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sup>2)</sup> 그리하여 패션의 색채는 시대별 사회, 문화적 이슈와 관련된 유행색상으로 나타나며 소비자의 선호색과 더불어 소재와 스타일에 부합되는 효과적인 패션디자인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

또한 패션색채는 한 시대의 단면을 보여주는 단서로써 비주얼적인 효과가 더욱 강조되고 있는 동시대에 있어서 새로운 트렌드 핵심에 맞추어 감성적이고 조화로운 색채 계획이 필요하다.

패션의 역사에서 색채의 사용을 보면 1900년대에는 아르누보와 함께 인상주의 영향으로 부드럽고 환상적인 분위기의 파스텔 색조가 널리 퍼졌으며 1910년대의 제 1차 세계대전 즈음에는 어두운 색조가 유행되기도 하였다. 1920년대에는 인공합성염료의 발달로 자유롭고 인공적인 색채가 사용되었고 아르데코의 영향으로 원색과 금속광택이 등장하였다. 1930년대에는 세계경제공황의 혼란의 시대로 화이트가 유행을 하였고 어려운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차분한 색조가 주를 이룬 시기였다. 1940년대에는 밀리터리 룩의 유행과 함께 직물과 염료의 부족으로 옅고 흐린 색채가 많이 사용되었고 1950년대는 점차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로 여배우들의 대중적인 인기와 함께 베이비 핑크, 베이비 블루 등이 유행하였다. 1960년대는 영 패션의 시대로 대중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사이키델릭의 영향을 받으면서 명도와 채도가 높은 현란한 색채로 변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침체된 경기에 맞게 합리적인 소비성향으로 브라운 계열의 탁한 색채가 전반적인 주류를 이루었고 1980년대에는 동서의 냉전과 함께 세계경제가 침체기로 블랙, 화이트, 뉴트럴 계열 색들이 유행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환경문제 및 여러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정보화시대로 인하여 패션전반에 다양한 스타일을 공유하게 되었고 미니멀리즘의 영향으로 블랙, 화이트, 베이지, 카키 색채 등이 유행하게 되었다. 특히 밀리터리 룩은 세기말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함께 많은 컬렉션에서 역동적인 스타일과 다양한 색채로 나타나게 되었다.

## 2. 20세기 말 패션 트렌드

1996년 패션계에서는 이전의 로맨틱즘의 경향이 다시 미니멀리즘으로 변화된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스타일에 있어서는 간결한 스포티브 룩, 밀리터리 룩, 에스닉 룩이 대표적이었다.<sup>3)</sup> 이 당시 주요 스타일은 밀리터리, 모던 스포티, 미니멀리즘, 엘레강스 스타일 이었고 색상 트렌드는 1996년 S/S 시즌의 경우 화이트와 블랙이 기본적으로 사용되었고 그 외 그레이, 옐로우, 핑크, 블루 등이 제안되었다. 1996년 F/W 시즌의 트렌드 색상으로는 블랙, 화이트 베이지, 그레이, 그린, 브라운 등의 엘레강스한 기본적인 색상이 제안되었지만 계절감이 느껴지는 어두운 다크톤이 함께 나타났다.

1997년에는 밀리터리, 미니멀, 매니쉬, 심플, 모던, 에스닉, 에콜로지, 엘레강스, 로매틱 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1960년대와 1970년대 미니멀리즘의 영향이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되어 직선적이고 심플하며 전반적으로 팬츠 수트가 강세를 보이게 되었다. 국내외적으로 S/S 시즌 트렌드 색상은 에콜로지를 중요하게 다루던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오렌지, 브라운, 레드, 그레이, 그린 색상과 더불어 화이트와 블랙이 제안되었고, F/W 시즌에서도 옐로우와 그린, 오렌지, 브라운, 화이트와 블랙이 제안되었다. 1997년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화이트, 그레이, 블랙이 기본 색상으로 주로 여기에 내

추럴 색상이 반영되었다.

1998년에는 페미닌, 모던, 심플, 아방가르드, 미니멀리즘, 매니쉬 스타일이 주된 스타일을 이루며, S/S 시즌에는 화이트, 그레이, 블랙, 오렌지, 레드 등의 시원한 느낌의 색채와 따뜻한 색채가 공존하면서 부드러운 색감이 제안되었다. 또한 F/W 시즌에는 그레이, 블루, 레드와 그레이쉬 톤 등의 깊이감이 있는 색상이 제안되었다.<sup>4)</sup>

1999년에는 국내외적으로 장식성이 없이 간결한 미니멀리즘, 밀리터리, 심플, 모던, 럭셔리한 페미닌 스타일이 제안되었고 동시에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나타났다. S/S 시즌의 컬러에는 화이트, 그레이, 베이지, 옐로우, 블루 등이 제안되었고 F/W 시즌에는 그레이 계열과 베이지, 레드 등이 제안되었다.

2000년의 패션 트렌드는 새로운 세기에 대한 기대가 비일상적인 역동적이고 모험심으로 표출된 이미지가 반영되었고 하이브리드(hybrid)경향에 의한 멀티믹스 스타일이 등장하여 도발적인 엘레강스, 미니멀리즘, 멀티믹스, 에스닉, 오리엔탈, 스포티, 레트로 스타일 등이 유행하였다. S/S 시즌의 컬러에는 화이트, 옐로우, 블루, 베이지 등이 제안되었고 F/W 시즌에는 블랙, 화이트, 블루, 크립베이지, 레드, 라벤더 등이 제안되었다.

이상과 같이 20세기 후반은 국내외적으로 세기말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불경기에서 점차 회복되어가는 사회분위기가 전반적이었다. 이에 스타일에서도 심플하고 장식을 배제한 미니멀리즘, 밀리터리, 로맨틱, 에스닉, 엘레강스 등의 다양한 스타일이 반영되면서 색상 트렌드 또한 비교적 베이직한 컬러인 블랙, 화이트, 그레이 등의 기본 색상에 오렌지, 블루, 그린, 네이비, 핑크, 레드 등의 주요색상이 제안된 것을 볼 수 있었다.

## 3. 20세기 밀리터리 룩의 개념 및 선행연구

밀리터리란 의미는 ‘군의, 군대의, 군사’의 뜻과 ‘육군의’ 등의 뜻으로 밀리터리 룩은 군복의 요소를 살려 디자인 된 밀리터리 스타일을 의미한다. 밀리터리 룩은 이제 출현 당시의 스타일 변화와 동시에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기에 본 연구에는 디자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았다.

먼저, 이유미<sup>5)</sup>와 콕유미<sup>6)</sup> 연구에서는 군복의 특징을 살린 밀리터리 룩 디자인 및 작품을 제시하였다. 또 김지영<sup>7)</sup>의 연구에서는 1960년대 이전과 이후로 밀리터리 룩 사적 고찰을 살펴보고, 하이패션을 따로 미니멀(minimal), 매니시(mannish), 레트로(retro)로 분류하면서 스트리트 패션에서는 스포티(sporty)와 아방가르드(avant-garde)로 분류하여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밀리터리 룩의 양상 및 조형의지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최혜주<sup>8)</sup>의 연구에서는 밀리터리 룩의 조형미 중심으로 고찰하였고, 정성지<sup>9)</sup>의 연구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밀리터리 복식을 비교 연구하였다.

한편, 간문자<sup>10)</sup>의 연구에서는 밀리터리 룩을 저항 패션 현상으로 인식하고 제1·2차 세계대전기간과 1970년대, 1990년대 기간의 밀리터리 룩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였고 1970년대와 1990년대의 군복의 아이템과 디테일이 장식되어 있는 밀리터리 룩의 내적 의미를 분석하였다. 한순자<sup>11)</sup>의 연구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의 복식영향 및 군복의 장식적 요소를 중심으로 스트리트 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을 고찰한 연구 등의 유형으로써 나타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밀리터리 룩을 일반적인 특징으로 입증하면서 조형미적 특성을 고찰하였다.

이상의 결과 선행연구에서는 20세기 말의 밀리터리 룩에 관한 역사적 고찰, 밀리터리 룩 아이템과 디테일의 연구 그리고 이미지별로 분류한 연구가 두드러졌으며 20세기말 밀리터리 룩에 관련된 색채에 관한 연구가 아직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세기 말의 밀리터리 룩의 디자인과 이미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색채와 배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에서는 세계적인 패션흐름을 잘 보여주고

다량의 연구자료를 얻을 수 있는 정기간행물인 Vogue(미국판)와 Collezioni Donna(이태리판)를 연구자료로 이용하였다. 연구 분석 자료의 범위는 20세기말 패션 현상의 특징인 다각적인 패션 룩 출현의 한 현상으로 보여지는 밀리터리 룩 디자인 경향이 나타난 1996년 S/S에서 2000년 F/W까지 총 5년 동안의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연구 방법을 위하여 내용분석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빈도와 분포조사를 통계 활용을 통하여 정량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1996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출판된 Vogue에서 수집한 315건의 자료와 Collezioni Donna에서 수집한 689건의 자료로 총 1004건의 밀리터리 룩의 특성을 내포하는 사진자료를 분석에 이용되었다(표 1).

밀리터리 룩 색채분석은 이경희<sup>12)</sup>의 분류법을 활용하여 주조색을 중심으로 black, white brown range, yellow range, blue range, olive range, gray range, green range, yellow green range, red range, pink range, orange range, violet range, blue green range, purple range, red purple range 대분류 16계열과 이를 다시 세분하여 40 색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색채 배색은 monochrome, contrast, accent, tone on tone, dominant, tone in tone, complex, separation 8종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 2. 연구 분석방법

자료 수집은 객관성 있는 자료선정을 위하여 석사 학위 이상의 의상학 전공자 2명과 함께 자료를 선정하였다. 표집된 분석 자료는 SPSS 10.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자료수집의 단위는 '건수'로 정하였다.

나아가 본 자료에는 두 잡지에 실린 작품사진뿐 아니라 밀리터리 룩의 광고내용이나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등도 포함시켰고 총 수집된 자료 1004건을 대상으로 아이템별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코트(coat, 305건 17.5%), 재킷(jacket, 286건, 16.4%), 팬츠(pants, 269건, 15.5%), 드레스(dress, 191건, 11.0%), 팬츠 슈트(pants-suit, 174건, 10.2%), 스커트(skirt, 148건, 8.5%), 스커트 슈트(skirt-suit, 99건, 5.7%),

〈표 1〉 Frequency of military look on fashion magazines

(단위: 건수)

Year	season	Vogue		Collezioni Donna		Frequency (%)	
1996	SS	42	93	99	284	141	377
	FW	51	(9.3)	185	(28.3)	236	(37.5)
1997	SS	23	34	72	93	95	127
	FW	11	(3.3)	21	(9.3)	32	(12.6)
1998	SS	23	45	22	49	45	94
	FW	22	(4.4)	27	(4.9)	49	(9.4)
1999	SS	25	46	53	135	78	181
	FW	21	(4.5)	82	(13.4)	103	(18.1)
2000	SS	40	97	40	128	80	225
	FW	57	(9.7)	88	(12.7)	145	(22.4)
Total (%)	SS	153	315	286	689	439	1004
	FW	162	(31.4)	403	(68.6)	565	(100.0)

터틀넥 스웨터(turtle neck sweater, 82건, 4.7%), 블라우스(blouse, 73건, 4.2%), 티셔츠(T-shirts, 39건, 2.2%), 탱크 탑(tank top, 38건, 2.1%), 점프 수트(jump-suit, 13건, 0.7%), 베스트(vest, 11건, 0.6%), 아노락(anorak, 5건, 0.2%), 가디건(cardigan, 1건, 0.0%) 순으로 나타나 총 1735건의 자료가 수집, 분석에 이용되었다.

#### IV. 결과 및 고찰

##### 1. 밀리터리 룩의 색상

밀리터리 룩 색상을 분석한 결과, 블랙(black) 263건(15.2%), 화이트(white) 261건(15.1%), 브라운 계열(brown range) 212건(12.2%), 옐로우 계열(yellow range) 179건(10.3%), 블루 계열(blue range) 174건(10.0%), 올리브 계열(olive range) 138건(8.0%), 그레이 계열(gray range) 89건(5.1%), 그린 계열(green range) 67건(3.8%), 옐로우 그린 계열(yellow green range) 60건(3.4%), 핑크 계열(pink range) 58건(3.3%), 레드 계열(red range) 57건(3.2%), 오렌지 계열(orange range) 51건(2.9%), 바이올렛 계열(violet range) 50건(2.9%), 블루 그린 계열(blue green range) 32건(1.8%), 퍼플 계열(purple range) 21건(1.2%), 레드 퍼플 계열(red purple range) 12건(0.6%) 순으로 모두 16 계열에 40색으로 분석되어 밀리터리 룩

에 활용된 색상의 종류가 매우 다양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타의 11건은 카무플라주 문양으로 S/S 시즌 6건, F/W 시즌에 5건이 나타났다.

연도별 건수의 분포도를 <표 2>에서 보면 전체대비 1996년 654건(37.6%), 1997년 234건(13.4%), 1998년 139건(8.0%), 1999년 322건(18.5%), 2000년 386건(22.2%)으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연도별 분포도에서는 1996년에 전체대비 37.6%를 차지하여 밀리터리 룩의 출현이 연구대상 기간 동안 가장 높다가 그 다음해부터 다시 낮아지다가 1999년부터 다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전체적으로 1996년부터 20세기말의 분위기가 고조되어 복고풍의 영향과 함께 미니멀리즘, 밀리터리 룩, 엘레강스 스타일 등이 유행함으로써 간결하게 배제된 선과 지퍼와 포켓 장식 등과 무채색 컬러 경향이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 많이 제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즌별로 분석해 보면 F/W 시즌이 S/S 시즌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F/W 시즌에는 총 1002건(57.7%)로 연도별로 보면 1996년 429건(42.8%), 1997년 65건(6.4%), 1998년 69건(6.5%), 1999년 193건(19.2%), 2000년 246건(24.5%)으로 분석되었고 1996년에는 42%가 넘어 1996년에서 2000년까지의 각 시즌별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S/S 시즌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도까지 총 733(42.2%)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1996년 225건(30.6%), 1997년 169건(23.0%), 1998년 70건(9.5%), 1999년 129건

(17.5%), 2000년 140건(19.0%)로 분석되었다. 1996년도 밀리터리 룩의 빈도는 S/S 전체(733건)의 30%가 넘게 나타났지만 1998년도에는 디자인의 빈도수가 하향하다가 다시 1999년 17.5%, 2000년 19.0%로 높아지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분석으로 보면 밀리터리 룩은 가을, 겨울 시즌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성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밀리터리 룩에 이용된 주요 색상을 살펴보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채색인 블랙 263건(전체대비 15.2%)과 화이트 261건(전체대비 15.0%)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고은주, 이지현<sup>13)</sup>의 연구에서는 1996년 색조 트렌드분석 가운데 무채색 계열이 크게 증가했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며 당시 주요 트렌드 색상이 무채색이었고 이러한 색상 경향이 밀리터리 룩에도 반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S/S 시즌 경우에는 화이트 149건, 블랙 88건이 나타났고 F/W 시즌 경우에는 블랙 175건, 화이트 112건으로 나타난 것을 보면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밝은 색상인 화이트가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0세기 말의 당시 주요 트렌드 색상이었던 무채색은 밀리터리 룩에도 나타났는데 그 예로 존 바틀렛(John Bartlette)<그림 1><sup>14)</sup>은 1998 F/W 시즌 컬렉션에서 터널 칼라(tunnel collar)가 특징인 블랙 팬츠

수트(black pants suit)를 샘 브라운 벨트(Sam Brown belt)와 함께 매치하여 심플한 에이치 라인(H line)의 실루엣으로 매니시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의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던 파리 컬렉션의 특징과 함께<sup>15)</sup> 지방시(Givenchy)<그림 2><sup>16)</sup>는 1997년 F/W컬렉션에서 “Wool sailor dress”라는 테마와 함께 어깨가 드러나는 Y라인의 화이트 슬리브리스(sleeveless)드레스의 밀리터리 룩을 선보였다. 이 디자인에서는 기존의 세일러복의 개념에서 벗어나 아방가르드한 이미지의 화이트 드레스와 골드 의 어피서 캡(officer's cap), 금박단추 등으로 화이트가 돋보이는 밀리터리 룩을 선보였다.

블랙과 화이트 다음으로 높은 빈도로 나타난 브라운 계열은 212건(전체대비 12.2%)를 차지하였으며 이를 세분하면 베이지 102건(전체대비 5.8%), 라이트 브라운 26건(전체대비 1.5%), 다크 브라운 84건(전체대비 4.8%)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베이지는 102건으로 블랙과 화이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당시의 트렌드에서 어두운 톤(dark tone)이 유행하였듯이 밀리터리 룩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반영된 것임을 엿보게 한다.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듯 1997년 S/S 시즌 컬렉션에서 프라다(Prada)<그림 3><sup>17)</sup>는 베이지가 적절하게 믹스된 낡고 바랜듯한 느낌의 셔츠와 팬츠를 다크 브라운의 벨트와 함께 톤



<그림 1> Black pants suit 1998, John Bartlette, - *Collezioni Donna*, 64, p. 208.



<그림 2> White dress 1997, Givenchy - *Collezioni Donna*, 57, p. 231.



<그림 3> Beige shirts & pants 1997, Prada - *Collezioni Donna*, 55, p. 103.



<그림 4> Gold pants suit 1996, Chanel - *Vogue*, 186(10), p. 297.

은 톤으로 연출하여 빈티지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을 도회적인 모습으로 표현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옐로우 계열은 179건(전체대비 10.3%)으로 세부적으로는 페일 옐로우 76건(전체대비 4.3%), 다크 옐로우 75건(전체대비 4.3%), 골드 28건(전체대비 1.6%)로 분석되었다. 샤넬(Chanel)〈그림 4〉<sup>18)</sup>은 1996년 F/W 시즌에서는 고저스한 이미지의 차이나스 칼라가 특징인 골드의 화려한 밀리터리 룩을 선보였다.

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블루 계열은 174건(전체대비 10.0%)으로 나타났는데 밝은 계열에 속하는 페일스카이와 브라이트 블루는 총 94건(전체대비 5.4%)로 나타났고, 어두운 계열에 속하는 딥 블루와 다크 블루는 총 80건(전체대비 4.6%)으로 분석되었다. 알베르타 페레티(Alberta Ferretti)〈그림 5〉<sup>19)</sup>의 1996년 SS 컬렉션에서는 블루계열의 색상들을 조합하여 단추가 돋보이는 포켓(buttoned pocket)이 특징인 매프러운 느낌의 재킷과 진 팬츠를 매치하여 일반적인 밀리터리 룩과는 다른 이외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팝(pop)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을 표현하였다.

한편, 올리브 계열은 총 138건(전체대비 8.0%)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라이트 그레이쉬 올리브 41건(전체대비 2.3%), 올리브 그린 97건(전체대비 5.5%)로 나타났다.

1996년 니나 리찌(Nina Ricci)〈그림 6〉<sup>20)</sup>는 F/W

시즌 컬렉션에서 화이트 터틀넥 스웨터와 올리브 그린으로 구성된 스커트를 보여주어 컨트라스트 효과를 주는 시크한 밀리터리 룩을 디자인하였다.

다음, 그레이 계열은 총 89건(전체대비 5.1%)로, 라이트 그레이 45건(전체대비 2.5%), 중간톤의 미디움 그레이 32건(전체대비 1.8%), 다크 그레이 12건(전체대비 0.6%)으로 분석되었는데 디올〈그림 7〉<sup>21)</sup>은 2000년 F/W 컬렉션에서 그레이 계열의 탠디 이미지를 살린 밀리터리 룩을 제안하였다.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그린 계열은 총 67건(전체대비 3.8%)로 나타난 밝은 라이트 그린은 5건(전체대비 0.2%), 브라이트 그린 12건(전체대비 0.6%), 다크 그린 50건(전체대비 2.8%)로 세분되어 나타났다. 샤넬〈그림 8〉<sup>22)</sup>도 라이트 그린(light green)의 웨이스트가 타이트하게 밀착된 아우어글래스 실루엣의 재킷과 팬츠가 특징인 클래식한 룩을 선보임으로써 다양한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을 보여주었다.

옐로우 그린 계열은 총 60건(전체대비 3.4%)로 페일 옐로우 그린 20건(전체대비 1.1%), 스트롱 옐로우 그린 31건(전체대비 1.7%), 그레이쉬 립 9건(전체대비 0.5%)로 나타났다. 한 예로 1999년 S/S 시즌에 질 샌더(Jil Sander)〈그림 9〉<sup>23)</sup>에서는 페일 옐로우 그린의 페미닌한 이미지의 밀리터리 탑 드레스를 컬러면에서 강하게 보여줌으로써 밀리터리 룩을 한층 더 여성스럽게 표현해주시기도 하였다.



〈그림 5〉 Blue range military look 1996, Alberta Ferretti  
- *Collezioni Donna*, 50,  
p. 60.

〈그림 6〉 Olive range military look 1996, Nina Ricci  
- *Collezioni Donna*, 52,  
p. 254.

〈그림 7〉 Grey range military look 2000, Dior  
- *Collezioni Donna*, 76,  
p. 345.

〈그림 8〉 Light green range military look 1996, Chanel  
- *Vogue*, 186(7),  
p. 48.



〈그림 9〉 Pale yellow green military look 1999, Jil Sander - *Vogue*, 189(7), p. 152.



〈그림 10〉 Red range military look 1996, Paola Frani - *Collezioni Donna*, 50, p. 62.



〈그림 11〉 Deep orange range military 1996, Ralph Lauren - *Vogue*, 186(9), p. 39.



〈그림 12〉 Violet range military 1996, Donna Karan - *Vogue*, 186(7), p. 49.

그 다음, 레드 계열과 핑크 계열은 합해서 총 115건(전체대비 6.6%)으로 비비드 레드 38건(전체대비 2.1%), 다크 레드 19건(전체대비 1.0%), 페일 핑크 20건(전체대비 1.1%), 로즈 27건(전체대비 1.5%), 딥 핑크 11건(전체대비 0.6%)로 나타났다.

1996년 SS 컬렉션에서 파올라 프라니(Paola Frani)〈그림 10〉<sup>24)</sup>는 여성스럽게 벨트를 맨 화려한 색상의 레드계열의 트랜치 코트를 제안하였다.

또 오렌지 계열은 총 51건(전체대비 2.9%)으로 나타났는데 딥 오렌지 38건(전체대비 2.1%), 스트롱 오렌지 13건(전체대비 0.7%)로 분석되었는데, 1996년 F/W 시즌 랄프 로렌(Ralph Lauren)〈그림 11〉<sup>25)</sup>에서는 부시재킷과 같은 딥 오렌지 사파리 재킷을 보여줌으로써 다양한 컬러의 밀리터리 룩을 선보였다. 이외에도 바이올렛 계열 50건(전체대비 2.9%)〈그림 12〉<sup>26)</sup>, 블루 그린 계열 32건(전체대비 1.8%), 퍼플 계열 21건(1.2%), 레드 퍼플 계열 12건(0.6%)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전체적으로 볼 때, 올리브 그린 97건, 그린 계열 67건, 옐로우 그린 계열 60건을 합하면 전체 224건으로 전체대비 12.9%를 차지함으로써, 트랜치 컬러였던 무채색 블랙(15.2%)과 화이트(15.1%) 다음으로 그린 계열이 아직은 밀리터리 룩의 대표적인 컬러임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밀리터리 룩에서 벗어나 시즌 트렌드를 반영한 컬러를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패션 이미지의 변화를 추구

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밀리터리 룩 아이템은 코트에서 가디건에 이르기까지 모두 15종류의 아이템으로 나타나 매우 다양한 의복의 아이템에 밀리터리 스타일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난 아이템은 코트 17.5%로 이는 가을·겨울 계절에 많이 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밀리터리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그 다음으로 재킷 16.4%, 팬츠 15.5%, 팬츠 수트 10.2%로 나타남으로써 코트, 재킷, 팬츠, 팬츠 수트를 모두 합하여 59.6%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코트, 재킷, 바지 정장이 남성적인 강한 이미지를 내포하는 밀리터리 룩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아이템으로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 많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 2. 밀리터리 룩에 표현된 배색

본 연구의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서 컬러 배색은 모두 8종류로 분석되었다(Table 3). 먼저 가장 많이 사용된 배색의 순서대로 살펴보면 모노크롬 530건(52.7%), 컨트라스트 158(15.7%), 액센트 106건(10.5%), 톤온톤 85건(8.5%), 도미넌트 56건(5.5%), 톤인톤 34건(3.4%), 콤플렉스 23건(2.1%), 세페레이션 2건(0.2%) 순으로 나타나 모노크롬이 밀리터리 룩 배색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기타



<표 2> Military look color

(단위: 건수)

Category	Sub category	Munsell Color System	1996		1997		1998		1999		2000		1996-2000			Category Total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S/S	F/W	total	
Black	black	N1.0	29	70	14	13	8	8	12	28	25	56	88	175	263	263 (15.2)
White	white	N9.5	53	47	43	7	5	7	28	24	20	27	149	112	261	261 (15.0)
Brown range	beige	7.5YR9/2	12	20	21	-	6	1	6	2	14	20	59	43	102	212 (12.2)
	light brown	2.5YR8/6	1	5	9	-	2	1	-	3	3	2	15	11	26	
	dark brown	2.5YR2/4	7	22	8	12	5	7	-	7	4	12	24	60	84	
Yellow range	pale yellow	5Y9/4	5	21	6	-	5	5	7	4	6	17	29	47	76	179 (10.3)
	dark yellow	5Y6/6	7	19	7	3	7	1	4	9	3	15	28	47	75	
	gold	2.5Y7/10	7	10	8	-	-	1	-	-	2	-	17	11	28	
Blue range	pale sky	2.5PB8/4	15	8	2	2	-	-	5	8	7	6	29	24	53	174 (10.0)
	bright blue	5PB6/8	10	8	1	1	9	3	-	5	2	2	22	19	41	
	deep blue	2.5PB3/8	7	16	8	5	2	2	4	9	7	6	28	38	66	
	dark blue	2.5PB2/4	7	2	-	2	-	-	1	-	1	1	9	5	14	
Olive range	light grayish olive	10Y6/2	4	16	3	-	1	3	5	2	3	4	16	25	41	138 (8.0)
	olive green	5GY4/4	6	35	1	5	1	2	11	19	3	15	21	76	97	
Gray range	light gray	N7.5	7	11	5	1	1	4	6	4	-	6	19	26	45	89 (5.1)
	medium gray	N5.5	2	9	4	-	1	4	3	1	3	5	13	19	32	
	dark gray	N3.0	-	-	-	-	1	1	1	4	2	3	4	8	12	
Green range	light green	5G7/4	-	1	-	-	-	-	-	2	1	1	1	4	5	67 (3.8)
	bright green	5G7/8	-	5	2	-	-	2	-	-	-	3	2	10	12	
	dark green	5G3/3	1	9	-	3	1	4	13	10	6	3	21	29	50	
Yellow green range	pale yellow green	5GY8/2	2	2	-	-	2	1	4	6	1	2	9	11	20	60 (3.4)
	strong yellow green	5GY7/8	5	7	-	-	1	2	3	10	1	2	10	21	31	
	grayish leaf	5GY7/2	-	3	2	1	-	-	3	-	1	-	6	3	9	
Red range	vivid red	5R4/14	4	4	5	1	1	4	3	8	4	4	17	21	38	57 (3.3)
	dark red	5R3/6	1	2	1	5	2	1	-	1	3	3	7	12	19	
	pale pink	2.5R8/2	2	4	4	1	1	-	4	3	1	-	12	8	20	
Pink range	deep pink	2.5R6/10	1	4	-	-	2	-	1	1	1	1	5	6	11	58 (3.3)
	rose	2.5R5/10	1	9	4	-	-	-	-	6	1	6	6	21	27	
Orange range	strong orange	5YR7/10	1	9	-	-	-	-	-	-	3	-	4	9	13	51 (2.9)
	deep orange	5YR5/10	3	17	4	1	-	-	-	1	4	8	11	27	38	
Violet range	lavender	10PB7/4	7	6	4	1	-	2	2	3	3	3	16	15	31	50 (2.9)
	bright violet	2.5P5/10	1	2	-	-	-	-	1	5	1	2	3	9	12	
	dark violet	2.5P2/4	2	1	-	-	2	-	-	-	-	2	4	3	7	
Blue green range	bright turquoise	7.5BG6.7/8	-	7	-	-	-	-	-	1	-	-	-	8	8	32 (1.8)
	strong blue green	7.5BG5/8	2	2	-	-	1	-	1	3	1	-	5	5	10	
	dark blue green	7.5BG2/4	3	6	-	-	-	1	-	3	-	1	3	11	14	
Purple range	pale lilac	7.5P7/4	6	1	-	1	-	-	-	-	-	1	6	3	9	21 (1.2)
	light purple	7.5P7/6	3	1	-	-	-	-	-	1	3	-	6	2	8	
	dull purple	7.5P4/6	1	-	-	-	-	-	-	-	1	2	2	2	4	
Red purple range	strong red purple	5RP4/12	-	6	-	1	1	-	-	-	-	3	1	11	12	12 (0.6)
Others	-	-	-	2	3	-	2	1	1	-	-	2	6	5	11	11
16 ranges	40 colors	-	225	429	169	65	70	69	129	193	140	246	733	1002	1735(100.0)	
	Total		654	234	139	322	386									
	(%)		37.6	13.4	8.0	18.5	22.2									

(others) 11건(0.1%)는 카무플라주 문양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무채색과 그린 그리고 브라운 계열의 카무

플라주 문양을 사용하여 전형적인 밀리터리 스타일을 그대로 디자인에 적용하는 예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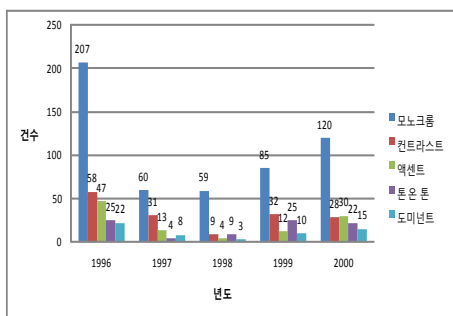
위 분석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모노크롬, 즉 단색으로 된 밀리터리 룩은 52.7%로 절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패션디자이너들이 밀리터리 룩이라는 강한 이미지를 가장 잘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여러 색 보다는 모노크롬을 많이 선호하는 것임을 짐작 할 수 있었다. 더불어 이러한 모노크롬은 최소한의 색상배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던 이미지가 잘 반영될 수 있었다. 년도별 건수와 단색과의 분포도를 <그림 13>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1996년 377건(37.5%)의 단색 207건(54.9%), 1997년 127건(12.6%)의 60건(53.5%), 1998년 94건(16.6%)의 59건(63.8%), 1999년 181건(18.0%)의 85건(46.9%), 2000년 225건(22.4%)의 120건(53.3%)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년도별 분포도는 1996년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서히 그 분포가 하향하다가 1999년에서 20세기 말에 가까워질수록 1999년에서 2000년에는 다시 상향하는 분포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켈빈 클라인(Calvin Klein)<그림 14><sup>27)</sup>컬렉션 작품에서는 다크 블루의 단색으로 된 팬츠 슈트의 밀리터리 룩을 선보였다. 이 작품에서는 색채에서 주는 차가운 이미지로 인하여 모던한 분위기를 더해 주었으며 최소한의 장식을 배제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단색 다음으로 컨트라스트(15.7%)배색이 많이 쓰

였는데 이는 두 가지 색상으로 대조적이면서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띄는 배색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1997 F/W 시즌의 미트하트(Mithat AG)<그림 15><sup>28)</sup>작품에서는 스트레이트 실루엣에 더블 여임이 특징이 밀리터리 블랙 재킷과 브라운 팬츠로 컨트라스트 배색을 이루어 시선을 집중시켜주면서 색상대비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또 샤넬<그림 16><sup>29)</sup>에서는 모자와 골드색의 벨트가 특징인 블루와 블랙의 대조된 밀리터리 룩 팬츠 슈트를 선보였는데 강한 남성 신사복의 이미지를 밀리터리 룩에 응용한 댄디(dandy) 이미지가 강한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

그 다음 높게 나타난 액센트 배색(10.6%)은 1996년 F/W 시즌 이스탄테(Istante)<그림 17><sup>30)</sup>의 컬렉션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이 작품에서는 팬츠 슈트의 안에 파스텔톤의 터틀넥 스웨터로 코디하여 액센트 효과를 준 밀리터리 룩을 제시하였으며, 니나 리찌<그림 18><sup>31)</sup>에서도 같은 시즌에 액센트 효과를 준 엘레강스한 분위기의 밀리터리 스커트 슈트를 발표하였다.

또 전체대비 8.4%로 나타난 톤온톤 배색은 S/S 시즌(44건)과 F/W 시즌(45건)으로 비슷한 빈도로 나타났으며 1996년과 1999년에는 25건으로 가장 많



<그림 13> Military look color-coordination (1996-2000)



<그림 14> monochrome 1996, Calvin Klein - *Vogue*, 186(7), p. 162.



<그림 15> contrast coordination 1997, Mithat AG - *Collezioni Donna*, 59, p. 352.



<그림 16> contrast coordination 1996, Chanel - *Vogue*, 186(10), p. 290.



〈그림 17〉 accent coordination 1996, Istante  
- *Vogue*, 186(7), p. 48



〈그림 18〉 accent coordination 1996, Nina Ricci  
- *Vogue*, 186(9), p. 264.



〈그림 19〉 tone on tone coordination 1996, Trussardi  
- *Collezioni Donna*, 52, p. 58.



〈그림 20〉 dominant coordination 1996, Y.S. Laurent  
- *Collezioni Donna*, 52, p. 348.



〈그림 21〉 dominant coordination 2000, Dior  
- *Vogue*, 191(1), p. 35.



〈그림 22〉 tone in tone coordination 1996, Istante  
- *Vogue*, 186(9), p. 284.



〈그림 23〉 complex coordination 1996, Helmut Lang  
- *Vogue*, 186(7), p. 107.

이 분석되었다. 1996년 F/W 시즌 트루사르디(Trussardi)〈그림 19〉<sup>32)</sup> 컬렉션에서도 벵타이, 셔츠, pants에 나타난 olive 계열의 색상들이 톤 온 톤 배색으로 남성적인 성향이 강해보이는 세련된 덴디 이미지의ミリ터리 룩을 표현하였다.

도미넌트 배색은 58건으로 전체대비 5.0%로 나타나 낮은 빈도이지만 이브 생 로랑(Y. S. Laurent)〈그림 20〉<sup>33)</sup>의 1996년 F/W 시즌 컬렉션에서는 에폴렛(epaulete)과 레오파드 패턴(leopard pattern)이 특징인 도미넌트ミリ터리 룩 코트를 선보였는데 블랙터틀넥 스웨터와 도미넌트 배색을 이루면서 동시에 이국적인 이미지를 잘 표현해 주었다.

또한 디올〈그림 21〉<sup>34)</sup>에서는 딤 오렌지의 비대칭적인 재킷과 카무플라주 문양의 스커트가 특징인ミリ터리 룩을 도미넌트 배색으로 표현하였다.

그 다음 빈도로 나타난 톤인톤 배색은 3.4%로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였는데 이스탄테〈그림 22〉<sup>35)</sup>의 1996년 F/W 시즌에서는 다크 브라운의 사파리 재킷을 베이지와의 조합으로 모던한ミリ터리 룩을 세련된 색상의 조합으로 표현하였다.

그 외, 콤플렉스 배색은 22건(전체대비 2.1%), 세퍼레이션 2건(0.2%)로 분석되었는데 1996년 S/S 시즌, 헬무트 랭(Helmut Lang)〈그림 23〉<sup>36)</sup>에서는 색상의 명도를 훨씬 낮춘 올리브 그린과 다크 그린 등

<표 3> Military look color coordination

(단위: 건수)

coordination	Image	1996			1997			1998			1999			2000			1996-2000		
		S/S	F/W	total	S/S	F/W	total	S/S	F/W	total	S/S	F/W	total	S/S	F/W	total	S/S	F/W	total
mono-chrome		83	124	207	46	14	60	25	34	59	43	42	85	44	75	119	241	289	530 (52.7)
contrast		22	36	58	24	7	31	7	2	9	12	20	32	12	16	28	77	81	158 (15.7)
accent		15	32	47	9	4	13	1	3	4	2	10	12	9	21	30	36	70	106 (10.5)
tone on tone		9	16	25	4	-	4	4	5	9	13	12	25	10	12	22	40	45	85 (8.4)
dominant		4	18	22	3	4	8	1	1	2	2	8	10	2	13	15	12	44	56 (5.5)
tone in tone		4	5	9	2	2	4	2	2	4	5	9	14	1	2	3	14	20	34 (3.4)
complex		4	3	7	4	1	5	3	1	4	-	1	1	2	3	5	13	9	22 (2.1)
separation		-	-	-	-	-	-	-	-	-	-	1	1	-	1	1	-	2	2 (0.2)
others		-	2	2	3	-	3	2	1	3	1	-	1	-	2	2	6	5	11 (0.1)
Total		141	236	377 (37.5)	95	32	127 (12.6)	45	49	94 (16.6)	78	103	181 (18.0)	80	145	225 (22.4)	439 (43.7)	565 (56.3)	1004 (100.0)

을 적용하여 강한 이미지의 밀리터리 룩을 안정감 있고 미묘한 색의 조합으로 표현함으로써 복잡한 색의 배색효과를 살려준 디자인이었다.

이처럼 배색은 어떠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적절한 배색기법을 적용하지만 특히 20세기말 밀리터리 룩에 있어서 배색은 군복의 이미지 속에도 톤의 차이나 색상의 차이로 색조의 통일감을 이루면서 다양한 배색 디자인으로 표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컬러 기획은 디자인의 감각적인 접근과 표현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패션 디자인특성에 맞는 색채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매 시즌마다 유행하는 트렌드 컬러가 반영되고 있는 밀리터리 룩은 20세기말이라는 독특한 분위기와 더불어 더욱 다양한 색상과 이미지로

표현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6년부터 2000년 말까지 Vogue와 Collezioni Donna 잡지에 실린 밀리터리 룩의 색채와 배색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전체 색상 분석에서는 무채색인 블랙과 화이트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는데 이는 20세기 후반 주요 트렌드 색상이었던 무채색 계열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 주로 사용된 유채색은 베이지, 올리브 그린, 다크 브라운, 다크 옐로우, 페일 옐로우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도별 분석에서는 1996년에 밀리터리 룩 출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997년부터는 차츰 감소를 보이다가 1999년과 2000년대에는 상향한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복고풍의 열풍과 함께 패션 트렌드에서 밀리터리 룩이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며 2000년으로 갈수록 세기말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됨으로써 당시 상승세를 보였다.

셋째, 시즌별 분석에는 S/S 시즌에는 주로 베이지와 페일 스카이라와 같은 밝은 색상이 많았고 반면에, F/W 시즌에는 다크 브라운, 다크 옐로우, 딥 블루와 같은 어두운 톤 색상으로 표현한 색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밀리터리 룩은 S/S 보다 F/W에 더 많이 나타남으로써 밀리터리 룩은 가을·겨울 시즌의 중요한 패션아이템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군복에서 사용되는 위장 무늬인 카무플라주 문양을 그대로 또는 색상만 변화하여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 적용한 예가 11건으로 나타나 더욱 더 밀리터리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디자인에 적용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배색 분석에서는 모노크롬이 절반 이상 차지하여 패션디자이너들이 밀리터리 룩의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하기 위하여 모노크롬 배색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는 컨트라스트와 액센트 배색이 많이 나타났는데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서는 강한 대비의 효과를 주어 눈에 띄 수 있는 배색이 선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톤온톤, 도미넌트, 톤인톤 배색 순으로 나타나 그린계열의 모노크롬 밀리터리 룩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다양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배색으로도 디자인에 표현되고 있었다.

다섯째, 밀리터리 룩에 나타난 주요 아이템에서는 코트로 이는 가을·겨울 계절에 많이 볼 수 있는 아이템으로써 밀리터리 분위기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 그 다음으로 재킷, 팬츠, 드레스, 팬츠 수트, 스커트 등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재킷과 바지 정장이 남성적인 강한 이미지를 내포하는 밀리터리 룩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아이템으로 밀리터리 룩 디자인에 많이 제안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세기말 밀리터리 룩 패션은 세기말이라는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높은 빈도로 표현되었으며 트렌드에 실용성을 가미한 패션으로 등장함으로써 시대사조를 반영한 패션과 색채 유행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밀리터리 룩은 이제 단순한 군복 모방이라는 선입견에서 벗어나 현대 유행색채 경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밀리터리 룩은 이제 전형적인 고정된 색채 이미지 외, 시대의 흐름과 더불어 색의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적합한 색채계획이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풍부한 색의 미적 체험과 응용력이 풍부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지영, 김지연 (2008), 현대패션에 나타난 일본풍 에스닉 룩의 색채특성, *한국의류학회지*, 32(11), pp. 1750-1759.
- 송지은, 최경희 (2010), 패션에 나타난 에코디자인의 색채경향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3), pp. 492-507.
- 양정희, 박혜원 (2010), 빈티지 패션의 색채특성에 관한 연구-2003~2008년 파리프레타포르테 컬렉션 중심으로, *패션비즈니스*, 14(1), pp. 86-105.
- 2) 김영인 외 (2003), *시각표현과 색채구성*, 서울: 교문사, pp. 44-45.
- 3) 김서연, 박길순 (2001), 1990년대 후반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세계화 현상-파리·런던·밀라노·뉴욕·도쿄·서울의 컬렉션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9(6), pp. 881-892.
- 4) 이재진 (2000), 패션트렌드 정보가 여성복 디자인 기획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5.
- 5) 이유미 (1996), 군복이미지를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8.
- 6) 광유미 (2000), 밀리터리 룩에 의한 복식 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04.
- 7) 김지영 (1997), 밀리터리 패션에 관한 연구-1960년대

- 이후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03.
- 8) 최혜주 (1998), 현대패션에 나타난 밀리터리 룩의 조형미 연구 -1990년대 패션을 중심으로-,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81.
  - 9) 정성지 (1984), 1, 2차 세계대전 전후의 복식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116.
  - 10) 간문자 (1997), 여성패션에 표현된 밀리터리 룩에 관한 고찰, *한국의류학회지*, 21(1), pp. 119-128.  
간문자 (1997), 저항패션으로서의 밀리터리 룩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논문집*, 18, pp. 808-818.
  - 11) 한순자 (1998), 밀리터리 룩의 스트리트 패션화에 관한 연구, *복식*, 44, pp. 19-35.
  - 12) 이경희 (2004), 패션산업의 색채관리를 위한 조사용 컬러코드의 설계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5(3), pp. 285-296.
  - 13) 고은주, 이지현 (2008), 최근 10년[1996년-2005년] 간 국내 패션 트렌드의 경향분석, *복식*, 58(9), pp. 18-28.
  - 14) *Collezioni Donna* (1998), 64, p. 208.
  - 15) 김서연, 박길순, *op. cit.*, p. 887.
  - 16) *Collezioni Donna* (1997), 57, p. 231.
  - 17) *Collezioni Donna* (1997), 55, p. 103.
  - 18) *Vogue* (1996), 186(10), p. 297.
  - 19) *Collezioni Donna* (1996), 50, p. 60.
  - 20) *Collezioni Donna* (1996), 52, p. 254.
  - 21) *Collezioni Donna* (2000), 76, p. 345.
  - 22) *Vogue* (1996), 186(7), p. 48.
  - 23) *Vogue* (1999), 189(7), p. 152.
  - 24) *Collezioni Donna* (1996), 50, p. 62.
  - 25) *Vogue* (1996), 186(9), p. 39.
  - 26) *Vogue* (1996), 186(7), p. 49.
  - 27) *Vogue* (1996), 186(7), p. 162.
  - 28) *Collezioni Donna* (1997), 59, p. 352.
  - 29) *Vogue* (1996), 186(10), p. 290.
  - 30) *Vogue* (1996), 186(7), p. 48.
  - 31) *Vogue* (1996), 186(9), p. 264.
  - 32) *Collezioni Donna* (1996), 52, p. 58.
  - 33) *Collezioni Donna* (1996), 52, p. 348.
  - 34) *Vogue* (2000), 191(1), p. 35.
  - 35) *Vogue* (1996), 186(9), p. 284.
  - 36) *Vogue* (1996), 186(7), p. 107.